

꽃으로 그리는 깨달음의 세계

고승희 제 2회 개인전 '산화'



“불화를 그리는 일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여 완성했을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천 번, 만 번 이상의 손길이 지나가야 완성 되는 절대적 시간 예술인 불화를 그리는 동안, 그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무한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고승희(동국대 교수) 작가의 제2회 개인전 '산화(散華)'가 3월 26일~4월 1일 갤러리 라메르 1층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산화' '무엇을 말해 줄까' 등 20여 점의 불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을 표현해낸다.

“육법공양 의식 중에 꽃 공양이 항상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의식을 제 작품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다가 이번 전시 주제를 산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법도 등의 내용에 보살화와 연화 등 불화에 자주 등장하는 꽃을 배경 이미지로 넣어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동국대 미술학부 교수이기도 한 고 씨는 순수 미술과는 차별화되는 종교화는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 그림은 고려불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도상의 변화를 추구하죠. 이번 작품에는 석굴암 부처님을 테마로 좌우 측면, 뒷모습을 보여주는 시도도 해봤어요.”

고 씨는 측면 사진을 통해 감성적인 부분의 접근을 시도했다. “여권 사진은 정면을 보여줌으로써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하지만 측면이나 뒷모습에의 사진에서는 그 사람의 감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굴암 부처님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부처님의 심오한 세계를 담아내



고승희 작가의 제2회 개인전 '산화(散華)'가 3월 26일~4월 1일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린다. 작품은 '산화'

부처님의 옆모습과 뒷모습 통해

감성적 부처님 모습 표현

보살화 연화 등으로 배경장식

3월 26일부터 갤러리 라메르서

화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불화를 그리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불화를 그려왔지만 아직도 불화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는 고 씨.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불화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그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참되고 정직한 예술이죠. 저는 제 작품을 통해 대중들이 불심을 키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승희 작가는 동국대학 대학원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동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조형연구소 학술연구팀장과 대전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2012년 제 1회 개인전 외 1995년부터 현재까지 100여회 단체전을 가진 바 있다. (02)730-5454 정혜숙 기자

만해 민족정신 '옥중 한시'로 기린다

만해기념관 특별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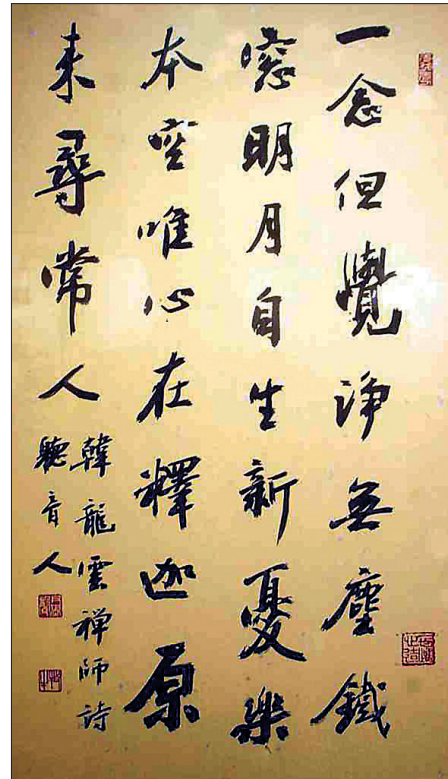
3월 31일까지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해 저항문학에 앞장섰으며 1937년 불교관계 항일단체인 만당사건(만당事件)의 배후자로 검거되기도 했다.

스님은 평생 동안 불교의 혁신과 작품활동에 매진하다가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인적하였다. 심우장은 조선총독부와 마주 보기 싫다는 이유로 북향으로 지어졌을 만큼 스님의 저항정신이 투철히 배어 있는 한옥 건물이기도 하다. 또한 스님은 문학사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불교적인 '님'을 자연(自然)으로 형상화했으며, 고도의 은유법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과 중생제도를 노래하며 한국 근대문학의 큰 획을 그었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이 3·1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의를 기리는 전시를 갖는다. 3·1절 95주년을 맞아 만해기념관은 3월 30일까지 기획 전시실에서 '만해 한용운의 옥중 한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민족독립을 위해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민족 자존심을 지킨 한용운 스님의 옥중 한시 시에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만해기념관은 전시에서 스님의 옥중 한시 15점과 한글시 '무궁화 심오과제' 등 총 16점과 3·1운동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또한 한용운 스님의 시를 석주 스님과 현담 스수현 교수, 청음인, 비월 오정교의 서예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만해기념관은 “이번



만해기념관은 '만해한용운의 옥중 한시전'을 개최한다. 사진 왼쪽은 '옥중감회' 오른쪽은 '가을비'

옥중감회·농산의 앵무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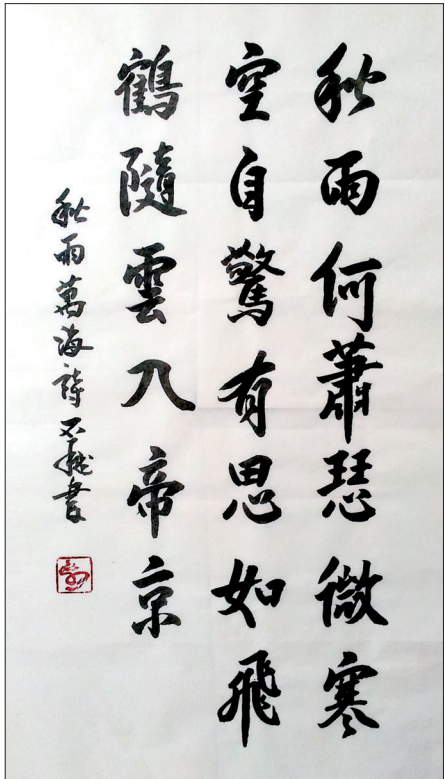
스님의 옥중 한시 15점과

3·1운동 관련 자료 전시

에 전시되는 자료와 시는 대부분이 3.1운동 이후 옥중에서 쓴 시”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옥중에서 느끼는 스님의 감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물처럼 맑은 심경 티끌 하나 없는 밤
철창으로 새로 덮는 달빛 고와라.
우락(憂樂)이 공이요 마음만이 있거니
석가도 원래는 예사사람일뿐.

獄中感懷(한용운 시, 청음인 씀)



옥중에서도 달빛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스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우락(憂樂)이 공이라고 했으니 달빛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근심과 즐거움을 뛰어넘어 부처의 세계에 닿고자 하는 스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한시이기도 하다.

만해기념관은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옥중 한시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재조명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정신과 독립의지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지표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031)744-31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소멸을 향해가는 현대문명 성찰한다

히로시 스키모토 '사유하는 사진' 전

3월 23일까지 리움 미술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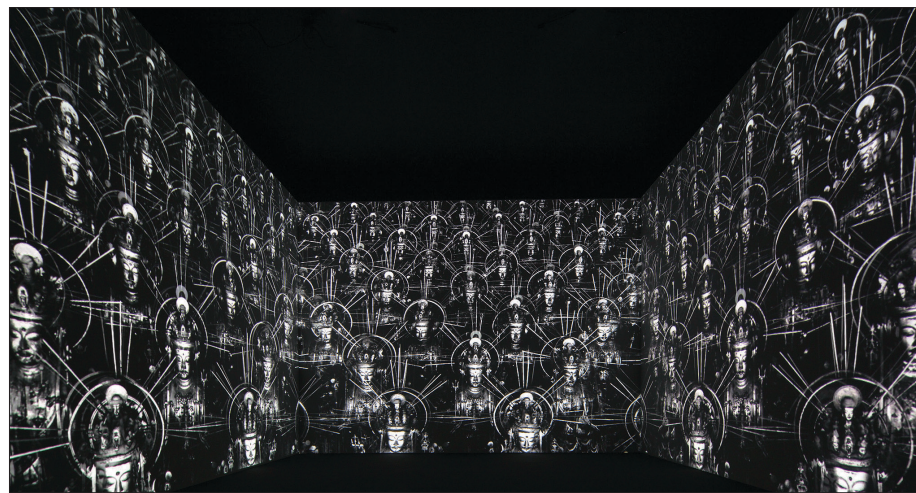
현대 사진의 거장 히로시 스키모토(1948~)의 '사유하는 사진'전이 3월 23일 까지 삼성 리움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작가의 대표적 사진 연작 및 최근의 조각설치, 영상을 포함하는 49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19세기 대형 카메라와 전통적 인화방식의 명맥을 유지하는 장인적 기술의 사진

을 감상하는 동시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인간 삶과 의식의 기원을 탐구하고 정신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스키모토의 예술 세계를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엔 새롭게 선보이는 '가속하는 불상'(1995-2013) 연작은 사진으로 이루어진 '부처의 바다'(1995), 3채널 영상인 '가속하는 불상'(1997/2013), 17점의 조각 설치 '5 원소(Five Elements)'를 아우르는 총체적 작업이다. 이 연작을 통해 스키모토는 소멸을 향해 가속해 가는 현대문명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의식의 기원을 찾

아 정신적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염원을 시각화한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미지들은 시선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사고를 유발한다. 시간을 거슬러 보이지 않은 기억을 더듬는 스키모토의 작품은 속도를 경주하는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느리고 깊게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밖에도 미국의 1920~30년대 아르데코 극장들과 1950~60년대 씨네마 홀, 자동차 극장들을 장노출 기법을 사용해 찍은 연작 작가의 초기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극장(1975~)'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시간성과 장



히로시 스키모토의 사유하는 사진전 3월 23일까지 열린다. '가속하는 불상'

소성을 상실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담아낸 '바다풍경(Seascapes)(1980~)' 등도 감상

할 수 있다. 히로시 스키모토는 일본 도쿄의 세인트

폴 대학교과 뮌헨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미국 LA의 아트센터 디자인 컬리지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01년 사진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핫셀블라드상' 수상, 2009년 영국 더타임스의 '1900년 이후 활동한 가장 위대한 예술가 200명' 선정 등 세계 미술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거장이다.

그는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간결한 형식, 깊이 있는 개념, 장인적 기술로 무장한 심도 있는 연작들을 발표했다. 199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을 비롯해 2000년 독일 구겐하임미술관, 2006년 워싱턴 스미소니안 아서 M. 새클러 갤러리, 2005년 도쿄 모리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02)2014-6900 정혜숙 기자

마하연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인천 직항 & 부산 출발】 부처님오신날 특가

- * 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고/시리암 5일 **요금문의**
 - 양곤/바간/헤호 5일 **요금문의**
 - * 백두산 5일, 6일 **요금문의**
 -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요금문의**
(지장도량, 관음도량) **요금문의**
 - * 구화산(지장도량) / 황산 5일 **요금문의**
 -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 양곤 바간 헤호 5일..... **요금문의**
 -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이티오 7일..... **요금문의**
-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구화산) 5일..... **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 **요금문의**
-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 **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 **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중국·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종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